



역재금성(얼큰선 포대, 국가 지정 고적지)

국가지정 고적지 "얼큰선 포대". 성문 위에 청나라 광서 황제 때 (1875) 해운부 대신이던 '심보정(沈葆楨)'이 남긴 "역재금성"이 새겨되어 역재금성(이자 이진성)이라고 불렸다. 대안에서 최초로 프랑스 기술자가 설계한 서양식 포대이며 영국 앤스트롬 포대가 대안에서 최초로 이곳에 세워졌다. 그 당시 대안 최고의 지역이었던 부성을 이른바 "1부, 2루, 3방기"라는 말도 있었다. 여기서 '부'는 부성 타이어만 말하고, 루는 루강을 말한다. 당시 타이어난성은 방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별모양의 네모통이 들출된 모습의 서양식 성곽의 포대를 축축하여, 성과 주위에는 깊이 2m 이상되는 강물이 성의 수호신과 같이 흐르고 있다.



자하우 원주민 공원

전설에 의하면 400년 전 태이난의 초간과 안평일대의 태이장 내해 연안은 한때 쪘우족 원주민들의 활동 범위로, 고대에는 쪽우족 언어로 태이난부성을 "자하우"라고 불렀다. 2004년, 이곳에 태이난시정부가 "자하우 회관"과 "자하우 원주민 공원"을 설립, 연수활동 및 전시 공간으로 회관을 사용하고, 아와 공원에는 원주민 예술 경관석, 원주민 토템의 사령대 단장, 문화 광장, 전망대 등으로 연례 행사 "찌우족의 날", "음악축제", "자하우 바자시장" 등 각종 행사활동을 펼친다.



위광도

위광도는 옛날에 "3분선·三鯤鯓"이라 불렸는데, "쿤(鯤)"이라는 것은 바다속의 큰 물고기- 즉 고래를 뜻하며, "선(鯢)"은 고래의 불로 뒤어나온 등을 의미하고 있다. 16세기애, 안평에서 남쪽으로 7 개의 사주 (모래밭)가 북쪽으로 일렬되어 있어, 이를 가르켜 "1분선"에서 "7분선"이라 불렸다. 1분선: 지금의 안평구 안평고보 근처, 2분선: 지금의 안평구 역재금성, 3분선: 지금의 안평구 위광도, 4분선: 지금의 남구 구문선, 5분선: 지금의 남구 시수, 6분선: 지금의 남구 완리, 7분선: 지금의 가오슝시 치에당구 바이사문을 말하고 있다. 위광도 지명의 유래, 전설에 따르면 주민들은 밤에 대나무 뱃목을 타고 바다로 나가, 외해에서 그물을 드리우며 그물의 부표 위를 반짝불로 표식하였는데, 밤이 해변가에서 바라 보면 이곳 저곳 그물 위에 반짝이는 불들로 보이게 되어, "3분선"을 "위광도「漁光島」"이라고 한다. 위광도에 있는 공공예술작품 "고래빛 위광"은 안평 지역의 두 가지 해양요소 "고래 고리"와 "거센 파도"의 이미지를 결합하여 디자인했다. 신화 속에 전해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 고래 고리는 행운을 상징하여, 안전한 바다 여행과 풍작을 뜻하고 있다.



역재공원

15.1헥타르 면적의 역재공원은 치메이 박물관의 도회공원 (40.9헥타르)에 이어, 타이난시에서 두번째로 큰 공원이다. 역재금성 근처 공원의 한곳에 황금나�나무 타페 비아를 심어, 매년 3월이 되면 꽃들이 만발한 황금색 꽃바다를 이룬다. 그외에도 보기 드문 리트시 글루터노사 나무, 멜리나 아르보레아, 바오밥나무, 오구나무, 체르베리 오들칼 등 다양한 생물들이 자라, 새들이 모여 풍요로움과 생동감을 자아내고 있다.

떡침 부두-더양 군함공원

더양함은 미군의 기어링급 구축함 (Gearing-class destroyer)으로, 군함번호 837이며, 1945년에 취역하여, 1977년 대만 해군이 인수, 미군에서 32년동안 복무하였다. 1978년초, 대만에 입항하면서, 군함번호 925로, '더양함'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28년 동안 대만에서 복무하였으며, 19명의 함장들이 역임하면서 29만 마일의 항해를 마치고, 2005년4월1일 퇴역하였다. 타이난시정부는 관광과 국방교육 그리고 해양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향상을 위해 국방부와의 협상을 통해 퇴역한 더양함을 대외적으로 공개 전시 하기로 한 새로운 단장에 착수하게 되었다. 2009년 1월22일 인계받은 타이난시정부는 타이난 안평항구에 군함을 정박하여 박물관에 전시하게 되었다.

